

조선업 현장 간담회

2018.12.10.(월) 14:30

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2018. 12. 10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. 인사말씀

□ 안녕하세요.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
-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케이중공업 이종열 대표님과 에이치케이조선, 파나시아, 한라HMS 대표님, 하이에어코리아 대우조선해양 및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□ 저는 지난 6월과 7월 부산과 목포를 방문하여 조선사와 기자재업체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, 10월에는 조선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선업계의 애로와 건의를 가감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□ 지난 11월 정부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담은 「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」을 발표(11.22일)하였는데,

-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*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고, 진행상황을 점검해보면서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점은 없는지 기탄없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* ❶ 조선사-기자재업체 상생보증 프로그램(1,000억원), ❷ 친환경 설비 등 유망 분야 기자재 보증(2,000억원), ❸ 중소조선사 RG 확대(1,000억원)

2. 조선업 현황 및 전망

□ 최근 조선업은 '16년 수주절벽에 따른
침체의 터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○ 글로벌 발주량이 증가*하고 있으며,
국내 조선사 수주 비중이 증가**하는 모습입니다.

* 글로벌 발주량(만CGT): ('14) 4,534, ('15) 4,222, ('16) 1,340, ('17) 2,709, ('18^e) 2,940

** 수주 점유율 변화('17.9월 → '18.9월 기준)

: [한국] 29.8→45.0%, [중국] 33.8→30.8%, [일본] 11.0→11.5%

○ 조선업 고용 역시 '15년말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,
금년 9월 이후 미약하지만 증가세로 전환*하였습니다.

* 조선업 고용(고용보험, 천명) : ('15년말)187.6, ('18.8월)104.9, (9월)105.4, (10월)105.9

○ 또한 황산화물 배출규제, 평형수 규제 등
IMO(국제해사기구)의 환경규제 강화기조*에 따라
친환경 선박·기자재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
예상됩니다.

* (SOx) '20년부터 선박연료 황산화물 배출 허용량이 3.5%에서 0.5%로 감축
(평형수 처리장치) '19.9월부터 평형수 처리장치 장착 의무화

□ 하지만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감소, 중국·싱가폴 등
경쟁국의 추격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,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
시황회복의 온기가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으로
퍼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

□ 그러나, 시황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 분명하고
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도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
-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선업체, 기자재업체가 수주를 하고도 금융지원 부족으로 생산·수출에 어려움을 겪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
- 수주와 생산의 시차*로 인해 기자재업체는 금년 수주물량**이 생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,

* 조선사의 신조수주 이후 기자재 제작 발주까지 통상 1년(설계 8개월 등)이 소요

** 국내 발주량(만CGT): ('14) 1,309, ('15) 1,097, ('16) 222, ('17) 746, ('18^e) 1,200

- 대형사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늘려가고 있는 반면, 일부 중소조선사는 RG 등 금융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업황회복을 체감하기까지의 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
- 금융지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탄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·스마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개발과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.

3.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방향

< 既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속한 추진 >

- 먼저 지난 11월에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,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“맞춤형 프로그램”을 통해 “적시에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

- ① 일감을 확보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
기자재업체에 제작금융을 지원하기 위한
상생보증 프로그램(1,000억원)을 마련하였으며,
지난 12.7일부터 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.

- 특히, 이 프로그램은 대형조선사가기자재업체와의
상생을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하여
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한데에
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신보와 기보는기자재업체 밀집지역에서
설명회 개최 및 상담, 조선기자재협동조합과의 협업* 등
을 통해 제작금융 상생보증수요를 적극적으로
발굴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* 조선기자재업체 명단 확보 및 공동홍보활동(홈페이지 게시, 우편발송) 등

- ② IMO 환경규제 강화기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
친환경설비 등 유망분야기자재 제작에 대해서는
11.30일부터 무보에서 보증 프로그램(2,000억원)을
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기자재업체들이 새롭게 마련된 무보 프로그램을 통해
조선·해운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
성장 모멘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- ③ 중소조선사 RG 발급시 신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
기존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무보에서 보다 큰 규모의
중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RG발급을 지원(1,000억원)할
계획입니다.

- 이 외에도 RG발급이나 제작금융 등에 애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원가능성이 입증되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등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.

시중은행들도 수주가 회복되는 점들을 감안해서 중소조선사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오늘 참석하신 은행연합회를 통해 요청드립니다.

- 아울러,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관리중인 중견조선사의 경우, 수익성 중심의 심사체계에서 기술력과 성장성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건조능력을 분석·평가하여 RG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④ 또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*의 기자재업체에 대한 대출·보증의 만기도 1년 연장하여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.

* 산은, 수은, 기은, 신보, 기보, 지신보, 중진공, 새마을금고

-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.

- 보증제공 및 만기연장 업무처리에 있어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의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 운영 중인 정책금융기관 현장반을 통해 조선업체의 금융애로를 파악하여 밀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* ①부산, ②거제, ③창원, ④울산, ⑤목포에 산·기은, 신·기보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금융애로를 상담·지원

<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금융지원 유도 >

- 개별 프로그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, 정책금융이 조선업 등 주력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.
 - 정책금융기관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인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.
 -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력산업의 업황둔화 및 침체기에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(Countercyclical) 자금공급을 통해 산업의 하방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-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 활력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
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경기와 산업환경에
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.
 - 매년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감안하여 집중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함으로써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.
 - 또한, 주력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당장 내년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.
2019년에는 정책금융의 경기대응적 역할이 강조되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겠습니다.

[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방향]

- ①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**자금공급 실적평가를 신설**
 - 신규공급(대출·투자)과 만기연장(대출) 실적을 평가하되 **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**
 - 여신담당자 면책제도 은행 내규화,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**질적요소 평가도 병행**
- ② '19년 **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**은 고용·수출·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,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감안하여 **자동차, 조선업**을 선정
- ③ **자금공급 목표**는 해당산업에 대한 **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 연장 실적**을 토대로 **업황·매출전망** 등을 감안하여 설정
- ④ **적극적 지원을 유도**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**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**

< 민간금융권의 조선업 지원방안 강구 >

☐ **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**은

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

시중은행 및 자본시장 등 민간금융권이 동참해야

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.

○ 우선, 앞서 말씀드린 중소조선사와 함께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 및 금융애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.

○ 동 점검결과를 토대로

시중은행 및 자본시장 player들이

조선업 자금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

맞춤형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.

4. 마무리 말씀

- ☐ 조선업과 같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
단기적인 금융지원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
것이 아닙니다.
 - ‘기술’, ‘설계’, ‘건조’ 등의 분야에서
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
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,
정부는 「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」에서 밝힌 바와 같이
재정, R&D, 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의 노력을
뒷받침해 나갈 예정입니다.
 - 아울러 생산설비 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,
신사업 진출 등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
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
‘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’을 통해
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
- * 중소·중견기업의 전통 주력산업 혁신·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을 지원
(‘19년부터 3년간 10조원 지원 예정, 10.24일 경장)
- ☐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
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
업계, 금융기관, 정부가 혼연일체(渾然一體) 되어
다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 - ☐ 감사합니다.